

클래식 명곡 산책 - 18 - 피아노 협주곡

글. 송주호 EBS IT운영부 선임



조성진의
연주로 음악 듣기
(bitly.kr/bIXF25)

본래 ‘협주곡’이란, 주요 선율과 후렴이 교대로 연주되는 ‘리토르넬로’ 형식으로 구성된 음악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흐의 <이탈리아 협주곡>처럼 건반악기 작품도 있었죠. 그러다 18세기 후반 고전 시대를 거치면서 독주 악기와 관현악단이 함께 연주하는 장르로 굳어졌습니다. 이번 달에는 피아노 협주곡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는 관현악의 기본적인 악기가 아닌 데다 자체로 완성된 화음을 만들 수 있기에, 관현악과 대등한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차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졌지요.



피아노 협주곡 / 출처 : federicocolli.eu



루트비히 판 베토벤 (1803) / 출처 : wikipedia.org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 피아노 협주곡 3번 다단조, 작품번호37 (1800-03)

Ludwig van Beethoven : Piano Concerto No. 3 in c minor, Op. 37

베토벤은 자신이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 피아노 협주곡 작곡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모차르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첫 두 곡의 피아노 협주곡은 “나의 최상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800년 말에 한 편지에서 “더 훌륭한 작품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혀 세 번째 피아노 협주곡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내비쳤죠.

하지만 이 새로운 협주곡의 탄생에는 뜻밖의 오랜 배태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곡의 스케치가 처음 나타난 때는 1797년 즈음이었는데요, <교향곡 1번>(1799-1800)을 마치고 1800년 4월 발표를 목표로 본격적으로 작곡에 돌입했죠. 그러나 그때까지 완성하지 못해 목표를 1802년 4월로 늦췄지만, 이번에는 연주회 자체가 취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작곡은 1803년까지도 이어졌죠. 그런데 1803년 4월 5일 ‘빈 극장’에서 베토벤 자신의 독주로 초연되었을 때마저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베토벤의 악보를 넘겨주었던 이그나츠 폰 자이프리트(Ignaz von Seyfried)는 “내가 본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였다. 한두 페이지 정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에게 단서가 될 만한 몇 개의 이집트 상형문자와 같은 것이 적혀 있었다. 그는 독주 파트를 거의 암기하여 연주했다.”라고 말했죠. 악보를 넘겨줘야 하는 관현악은 완성했지만, 자신이 연주하는 독주는 상당 부분 암기와 즉흥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결국 1804년 11월에야 악보가 완성되어 출판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다단조’라는 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작곡가들은 특정 조성에 특정 성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베토벤에게 다단조는 영웅을 상징했습니다. 베토벤에게 영웅이란, 혁혁한 전공을 세운 거물이 아니라, 고통의 극복을 통해 이룩된 완벽하고 고매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구원자적 이미지를 가진 이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다단조 작품은 영웅적이고 비극적이며 격렬한 감정적인 표현이 많죠. <비창 소나타>(1799), <코리올란 서곡>(1807), <운명 교향곡>(1807-08) 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며, <영웅 교향곡>(1803-04) 2악장 ‘장송행진곡’도 다단조입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소나타 형식. ‘빠르고 생기 있게’라는 뜻의 이 지시어는 앞선 두 협주곡의 1악장에도 사용되었으며, <영웅 교향곡>과 <운명 교향곡>의 1악장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시어에는 베토벤의 남다른 의지가 반영되어있죠. 긴장감이 가득하고 비장미가 서려 있는 극적인 서주에서 강력한 1주제와 부드러운 2주제가 제시되고, 최고조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중지하고 피아노가 영웅적으로 등장하죠. 피아노 독주는 강력하면서도 장식이 많아 화려하고 표현적인데, 이것은 당시 개량된 피아노의 음역과 음량, 음색 효과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베토벤은 이렇게 새로 개발된 최신 피아노의 특징을 곧바로 작품에 반영하곤 했습니다. 전개부에서는 피아노와 관현악의 대화가 두드러지며, 마지막 부분의 카덴차(피아노가 자유롭게 연주하는 독주 부분)는 베토벤이 직접 쓴 것이 자주 연주됩니다.

2악장 ‘라르고’ 3부 형식(A-B-A).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몽상적인 분위기로 1악장의 긴장을 한껏 풀어줍니다.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 오보에와 클라리넷, 트럼펫, 팀파니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모차르트의 유명한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론도’란 ‘원형’이라는 뜻으로, 여러 주제가 빙글빙글 돈다는 의미입니다. 이 악장은 전형적인 론도형식(A-B-A-C-A-B-A)을 취하고 있으며, 경쾌한 A주제, 평온한 B주제, 클라리넷으로 제시되는 C주제가 등장합니다. 다단조로서 2악장과 극단적으로 대조되어 격렬하고 정열적이면서도 빠른 리듬을 안에 불안함이 깃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다장조로 종종 바꾸어 긴장을 풀어주며, 결국 밝고 즐거운 분위기로 마무리합니다.

프레데릭 쇼팽 (1810~49) : 피아노 협주곡 1번 마단조, 작품번호11 (1830)

Frédéric Chopin : Piano Concerto No. 1 in e minor, Op. 11

사랑 앞에서는 누구나 시인이 되죠. 그렇다면 ‘피아노의 시인’ 쇼팽 앞에도 사랑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피아노 협주곡’이라는 제목이 쓰인 두 편지 연애편지의 수신자는 성악을 공부하던 바르샤바 음악학교 동창생 콘스탄차 과드코프스카(Konstancja Gładkowska)였습니다. 1830년에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작곡하면서 친구인 티투스 보이치에호프스키(Tytus Woyciechowski)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천 가지 행복한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인상을 담았다. 달빛 아래서 아름다운 봄날을 꿈꾸는 것 같다”고 적었죠. 콘스탄차는 쇼팽의 초기 노래들을 좋아했으며 고별 무대에서 그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만, 쇼팽은 짝사랑을 가슴 속에 묻은 채 그해 11월에 폴란드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술가 제레미 시프먼(Jeremy Siepmann)은 쇼팽이 관현악 규모의 곡을 쓴 것은 대중의 인지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이를 뛰어넘어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고전 시대의 막을 내린 베토벤은 1810년에 <황제 협주곡>을 완성한 이후, 초기 낭만의 아이콘 슈베르트는 단 한 곡의 피아노 협주곡도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쇼팽과 비슷한 연배의 슈만, 리스트 등의 피아노 협주곡들은 쇼팽보다도 한참 후에야 초연되었으며, 멘델스존이 1831년에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쇼팽의 작품에 비하면 존재감이 미미하죠. 그래서 음악학자 보흐단 포치에이(Bohdan Pocij)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낭만 시대 피아노 협주곡의 첫 걸작”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협주곡 장르에서 리스트,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등 괄목할 만한 쇼팽의 후계자 중, 순수한 독창성의 측면에서 쇼팽을 능가한 이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 곡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1번보다 <피아노 협주곡 2번>(1829-30)이 먼저 완성되었으며, 초연도 1830년 3월 17일로 일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 스테판 비트비츠키(Stefan Witwicki)는 10월 11일에 열린 1번 초연의 리뷰에서 이 곡을 “두 번째 거대한 협주곡”이라고 칭했죠. 그런데 쇼팽이 유럽 여행 중에 2번의 악보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1번을 먼저 출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곡을 비교하면 1번이 2번보다 좀 더 어려운데, 쇼팽 자신조차도 “이 곡을 연주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고 썼습니다. 이 귀여운 엄살을 뒤로 하고 훌륭히 연주했음은 물론이죠.

1악장은 바이올린의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주제로 시작하며, 곧 우울한 두 번째 주제와 비교적 밝은 세 번째 주제를 차례로 제시합니다. 피아노는 첫 주제를 강력한 타건으로 연주하며 등장하고, 이 세 주제를 다양하게 변주하며 진행합니다. 2악장 로망스는 꿈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듯 차분하게 진행하며, 피아노의 선율은 마치 사랑을 속삭이듯 애ত합니다. 이 악장에 지시된 ‘라르게토’는 <피아노 협주곡 2번>의 2악장에서도 사용된 빠르기말로, 이 두 곡이 그리는 대상이 동일함을 암시합니다. 마지막 3악장은 여러 주제가 번갈아가며 등장하는 론도 악장입니다. 쇼팽은 이 악장에 크라쿠프의 유명한 춤인 크라코비아크 리듬을 사용하여 민족주의 작곡가의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쇼팽은 마주르카, 폴로네이즈 등 폴란드 춤곡을 많이 사용했지만, 크라코비아크를 사용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쇼팽의 작품 목록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프레데릭 쇼팽 (1835) / 출처 : wqxr.org



콘스탄차 과드코프스카 / 출처 : facebook.com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1840~93) : 피아노 협주곡 1번 내림나단조, 작품번호23 (1875)

Pyotr Tchaikovsky: Piano Concerto No. 1 in Bb minor, Op. 23

19세기 러시아에서 차이코프스키만 한 인물을 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는 러시아인으로서는 러시아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으며, 또한 서유럽, 특히 자유롭고 환상적인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낭만적인 언어에 대해서도 통달해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당시 독일적인 형식미를 중요시했던 러시아 음악계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상곡 풍의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방종에 가까웠으며, 차이코프스키는 혹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875년에 작곡된 <피아노 협주곡 1번>은 그 대표적인 경우였죠.

차이코프스키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지만, 30대 중반까지 피아노를 위해서는 소품 수준의 작품만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1874년 11월에 갑작스레 피아노 협주곡에 관심을 갖고, 해를 넘기기 전에 완성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는 샘솟는 영감의 소산에 대해 큰 만족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스크바 음악원의 동료 교수였던 니콜라이 루빈스타인(Nikolai Rubinstein)과 니콜라이 후버트에게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가혹한 혹평뿐이었습니다. 특히 루빈스타인은 한동안의 무거운 침묵 후에 “다른 작품을 차용했다”, “두세 페이지만 쓸모가 있다”, “피아노 파트는 서툴러서 연주가 불가능하다” 등 매서운 질책을 날렸죠.

사실 루빈스타인의 비판은 어느 정도 합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1악장의 힘찬 팡파르의 짧은 서주 후에 등장하는 유명한 바이올린 주제는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죠! 이 부분 역시 서주라고 할 수 있지만, 한참 후에 등장하는 단출한 1주제와 비교하면 지나치게 거대합니다. 그리고 조성의 변화도 기존의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

고 있으며, 거대한 1악장에 2, 3악장이 부속곡과 같이 붙어있는 가분수적인 구조에는 전체의 균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에게 지나친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키는 부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관현악에 묻혀 들릴 수 없는 부분도 있었죠. 영감에 의해 일필휘지로 작곡되어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갈등은 얼마 되지 않아 풀어졌습니다. 루빈스타인은 그해 12월 3일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지휘와 차이코프스키의 수제자인 세르게이 타네예프의 독주로 이 곡을 연주했으며, 이후에도 즐겨 무대에 올렸죠. 차이코프스키도 마음을 바꾸어 에드바르트 단로이터와 알렉산드르 질로티의 조언을 수용하여 1889년에 최종판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차용’은 남아있습니다. 1악장에서 서주가 끝나고 호른이 연주된 후 등장하는 종종걸음과 같은 주제는 여동생이 살았던 카멘카 지역의 거리에서 들었던 장님들의 우크라이나 민요에서 가져왔으며, 2악장의 여유로운 첫 주제 부분이 끝나고 몹시 빨라지는 중간 부분에 비올라와 첼로로 연주되는 주제는 샹송 ‘춤추고 웃으며 삶을 즐겨라’(Il faut s’amuser, danser et rire)입니다. 3악장의 첫 피아노 주제는 우크라이나 민요 ‘가거라, 가거라, 이반’(Види, види, Иваньку)이죠. 차이코프스키가 이 곡을 작곡할

당시 우크라이나를 들렀었기 때문에 그곳 민요가 사용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샹송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곡은 차이코프스키와 약혼했지만 결혼에 이르지 못했던 소프라노 데지레 아르토(Desirée Artot)의 애창곡이었습니다. 1868년에 아르토는 차이코프스키의 동성애적 성향과 아르토의 출세가를 염려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갑자기 다른 사람과 결혼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차이

코프스키는 평생 아르토를 잊지 못하여 그녀에게 작품을 헌정하기도 했고, 음악활동 중에 마주치게 되면 식사를 함께하거나 파티에 참석하는 등 관계를 유지했죠. 샹송 선율을 앞선 2악장의 첫 플루트 선율은 아르토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 출처: wttl.org



데지레 아르토 / 출처: ebay.co.uk